


### 공동체 소식



**부활 제6주일**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 5월 기도지향

- + 안병환 발렌티노, 안현숙 크리스티나 가정
- + 마이클 모렌, 이영민 엘리사벳 가정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 '성모의 밤 미사'

- 일시: 5.3(화) 저녁7:30
- 장소: 성당

#### '첫주간 평일 및 신심 미사'

- 평일미사: 5.5(목) 오전10:00.
- 예수성심: 5.6(금) 오전10:00, 십자가의 길 기도 09:30시작.
- 성모신심: 없음.

#### 구역 모임

- 내용: 구역별 일정 조정.

#### '자비의 대희년 기도모임' 안내

- 시간: 매월 첫 번째 주일(5/1) 오후 3시.

#### 본당 쉼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본당 나자렛관.

#### 병원방문 시 통역 도움 받으실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 통역지원자: 조지연 마리아 (913-948-2925)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29	210	154	244

####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정예찬 미카엘	정병훈 보니파시오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다음주일	고평원 프란치스코	안광민 야고보
	이원준 요한	김준영 요셉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문석찬 요셉 문문주 엘리사벳
차주	김명은 안젤라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 애찬 봉사자

금주	문문주, 최은미, 박옥희
차주	정지현, 한순례, 조지연, 유수경

#### 헌금 봉사자

금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4/24	76명	393불	420불
(총 3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하시며,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를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생명 주일이며 이민의 날인 오늘 우리와 우리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합니다.

### 성화해설

#### 겔세마니에서의 고뇌 (안드레아 만테냐 1459, 런던 내셔널갤러리)

만테냐는 겔세마니에서 피땀 흘리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자리를 구분하면서 예수님의 자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성스러운 자리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고뇌에 싸여 기도하는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던 '고통 중에 함께 함'을 천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5,1-2.22-29

<성령과 우리는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화답송: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 2 독서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21,10-14.22-23<또는 22,12-14.16-17.20>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3-29<또는 17,20-26>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 쉐 마

##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말씀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며,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이야말로 당신을 사랑하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렇게 당신 말씀을 지키는 이와 언제나 함께하실 것이고, 예수님도 그와 함께 머무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며 그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예수님께서서 제자들과 함께 계심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이며,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서 공생활을 하시며 견내셨던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스승이신 예수님께서서 자신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며 마음이 산란해지고, 겹을 먹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겹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하느님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서 자신들을 물리적으로 떠나게 되자,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런 제자들 가운데로 들어오시어 당신이 약속하신 평화를 빌어주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요한 20,19-23). 그리고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문밖으로 나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믿어서

생명을 얻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요한 20,31).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들의 활동상이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1독서에서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활동합니다(사도 15,26). 그들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신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짓 사도들에 반대하여(사도 15,24),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충실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활동은 세상 종말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떠나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데, 오늘 2독서에서 봉독한 요한 묵시록은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어린양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나라는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나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함을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망각에 빠져 사는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성령께 다시 한 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언제나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청합시다. 하느님도,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듯 보이는 이 세상 안에서 두려워하거나, 산란해지지 않고, 평화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청합시다.

부활 시기를 마무리해가는 지금 다시 한 번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물리적으로 떠나셨지만,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체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엄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주춧돌

## 예수님과 함께 처형된 강도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여러분이 나에게 끌고 온 예수라는 사람을 신문해 보았지만,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하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인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23,1-31

한 로마 군인이 채찍으로 예수님에게 매질하고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쓰게 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목과 발등 위로 대못을 박고 로마 병사 여럿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매단 십자가를 똑바로 세웠습니다.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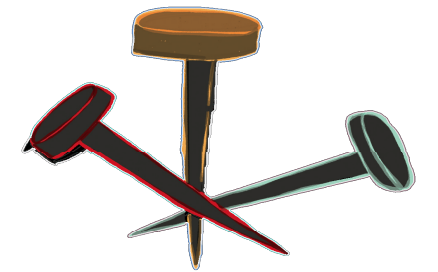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23,32-34

예수님을 못 박은 병사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걸뿔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사형수의 옷을 나누어 가

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쳐다보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 중 하나가 숨을 몰아쉬며 예수님에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편에 있던 죄수는 무엇이라 말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23,35-43

예수님의 곁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강도 중 회개한 사람은 죽기 바로 전에 구원을 받아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회개한 그 강도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주시시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 복음묵상

## 아이의 작품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작품은 아이가 그려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오직 엄마만을 위해 그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요한 14,27)

- 임의준 신부